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The Successful Preparation for the Old Age research of Philippines Baby Boomer overseas Korean

박현식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전공

Hyun-Sik Park(phs7922@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필리핀 교민 중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150부 중 105부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교민들의 노후 준비 실태 파악을 통해 해외 교민의 노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 정서적 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교민의 노후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서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필리핀교민 | 베이비부머 | 성공적 노후 | 노후준비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nfluences and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life after retirement of Koreans living in Philippine. The subject of survey is the generation of baby-booming(born from 1955-1963) and it was done from June 1 to August 15 in 2011. 150 survey questionnaire sheets were distributed and 126 answered sheets returned. Among them 105 that are to be recognized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the survey is to provide basic sources and information for setting up policies and programs of aged life of the generation.

The survey shows that the answers are in comparatively good financial level including average level of physical readiness and mental stability. Relative impacts are also strong in mental attitude and emotional preparation.

■ keyword : | Koreans in Philippines | Baby-boom Generation | Successful aging | Provision for Old Age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1.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으로 총인구의

11.3%[43]를 차지하며 2000년 7.2% 고령화, 2018년 14.3%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 초고령 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접수일자 : 2013년 07월 03일

수정일자 : 2013년 07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8월 05일

교신저자 : 박현식, e-mail : phs7922@hoseo.edu

[43]. 급속히 진행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차원에서 대책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준비가 더욱 절실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성장 둔화, 국가재정부담, 세대간 갈등 심화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 부양의식, 노후준비 등은 현재 노년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후준비 연구는 긍정적이고 통합적 관점인 성공적 노후에 대한 연구 [2][25][28][29]가 국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연구가 활발하게 이루고 있다.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미국 교민을 대상으로 연구 [7][12][23][26][31]와 동남아교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5][10][39]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 준비 연구에 있어서 은퇴이후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의 심각함을 밝히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이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성공적 노후의 문제는 국내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 된다 [15]. 한국의 사회연건의 변화로 해외 교민의 숫자가 늘어나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해외교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성공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내 베이비부머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도를 밝히고 있으나 독일교민의 경우 정서적 측면 특히 가족의 정서적 측면에서의 준비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15]. 해외교민들의 성공적 노후 준비에 대한 실태 연구를 통해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동남아 교민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미흡과 개인의 경제력 부족, 정서적 측면과 생활 방식의 이종적 구조에서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노년기에 직면하게 될 문제는 국내 노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교민의 노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필리핀 교민은 동남아 교민 중 교민의 수가 가장 많은 12만명이 거주하며 이주 역사 또한 60년이 넘

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97년 IMF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민이 가속화 되었으며 소자본으로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이주가 이루어 졌다 [52]. 즉 IMF 이후 경제적 문제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들의 연령은 베이비부머로 진입하였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하는 노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중년기의 경제적 여건은 성공적 노후생활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 교민의 노후준비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동남아시아의 이민중 이민의 역사, 교민의 수, 경제상황, 이민 동기 등의 일반화된 유형을 고려하여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유형으로 필리핀교민을 연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 베이비부머교민을 중심으로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 실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노후 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 1-1.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 1-2.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신체적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 1-3.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정서적 노후준비 실태는 어떠한가?
2.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노후생활 부양의 책임 의식은 어떠한가?
3.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거대한 도마뱀 속 돼지'로 표현되기도 하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는 세계2차 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약 7,700만 명의 인

구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미국 전체인구 중 26.1%를 차지하는 거대 집단으로 각 시대별 사회, 경제,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27]. 베이비붐 세대는 중년을 지나 초기 고령기로 접어들면서 이제까지의 중년의 개념을 '고요함'에서 '역동성'으로 바꾸고 고령화의 개념 역시 '수동적 부양'에서 '능동적 정년연장'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17].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7년부터 1949년 까지 3년간 출생한 64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세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대였던 1960년대에 진보적 이념과 가치를 내세우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고도성장을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의 여파 속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고 소비문화를 꽃 피우기보다는 노후생활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32]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거취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연령으로 정의하며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만47세-55세)는 695만 명으로 전체인구 4,799만 명의 14.5%를 차지한다[44].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세대이다. 가치관의 전환기에 있는 낡은 세대로서 은퇴 후 여명이 짧아 노후 준비에 부담이 적었던 부모 세대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자녀 세대 사이에서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전환기적 '긴세대'로 수직적 우세함을 비롯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까지 베이비부머는 사회적으로 '탐색되지 않은 소수집단으로 취급되었다[27]. 한국에서 베이비부머의 연구는 정책연구동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방하남(2010)은 정책연구동향으로는 임금체계, 직업개발, 고용개선과 관련한 연구와 정경희등(2010)은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하였다. 윤석명 등(2011)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경로별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진출 가능성 전망,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경로별 전망과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Mitchell, Hnstings and Tanyel(2002)은 세대개념으로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정호성등(2010)은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 전반에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은퇴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최영준(2012)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백은영(2011)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준비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동향은 정책연구와 베이비부머의 형태연구, 경제적 문제, 은퇴이후 삶의 문제, 노후의 문제의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교민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인 우리나라에 파병되었던 필리핀 사람들과 결혼하여 한국보다 선진국이었던 필리핀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시작으로 7-80년대 사업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고 1988년 올림픽 끝난 직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IMF로 경제적 활력을 찾기 위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사업, 경제적문제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52]. 필리핀 베이비부머교민은 한국 베이비부머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민의 동기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상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의 이중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성공적 노후와 노후준비

성공적노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6년 미국 노년 사회학회의 주제로 소개된 'successful aging'에서 시작되었고 국내학자들 사이에서 '성공적 노화' 혹은 '성공적 노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과 삶의 만족이 높고 적응의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성공적 노후는[22] 노화와 관련된 각종 상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노후의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16]. 성공적 노후는 노후 준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강유진(2005)

은 노후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시기는 40대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노인뿐만 아니라 노년기 이전세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김양이, 이체우(2008)는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공적노후의 구성요소의 연구[19][22][24][34]에서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를 자아, 가족, 건강, 자아성취, 편안한 일상의 안녕, 생애 만족, 사회적 기여, 심리 사회적 안정, 자기 관리, 자기 효능감, 타인과의 상호작용, 정서적 안정, 인지적 효율성 등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김동배(2008)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척도는 한국 노년기를 평가하는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노인관은 의존적이고 소외되는 부정적 노인관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긍정적 노인관으로 변하고 있다 즉, 기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오류를 지적하며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후 생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35].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는 중년층의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대비하여 경제적인 측면과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중년기부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0].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후준비연구[3][8][28][30][35]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노후를 위해 경제적준비, 신체적준비, 사회적, 정서적준비, 주거준비가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배문조(2009)는 노후준비의식을 노후준비시기, 국가 노후정책관심도,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주거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해 강조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준비가 문화, 사회적 상황으로 발전, 확장된 성공적 노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공적 노화 개념을 사용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필리핀 교민 중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준비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필리핀 한인회의 도움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1955년생-1963년생)교민을 대상으로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실기재를 제외한 1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였다.

2. 측정도구

1) 노후 준비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를 조사하기 위해 문헌과 김남순(2009), 배문조(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적 노후준비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재구성 하였다. 각각의 Cronbach α 는 .845, .739, .975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2) 성공적 노후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노년기를 평가하는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김동배(2008)가 개발한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공적 노후척도는 ‘자율적인 삶 9문항’, ‘자기완성 지향 6문항’, ‘적극적 인생참여 5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항’ 등의 6개 하위 요인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Cronbach α 는 .891, .814, .834, .885, .851, .753로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자료분석

설문지의 검토, 데이터 코딩과정 등을 거친 후 SPSS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frequency),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

를 산출하였다.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개인배경 특성변인을 보면, 베이비부머 (1955년생-1963년생)를 대상으로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61명(58.1%), 여성 44명(41.9%)으로 남자의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생활 기간은 5년이상~10년미만이 45명(42.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이상~15년미만 35명(33.3%), 15년이상~20년미만 16명(15.2%), 10이상~20년미만 6명(5.7%), 20년 이상이 2명 (1.9%) 순이었다. 필리핀 교민들의 주택유형은 13명(12.9%)이 개인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5명(84.2%)은 임대, 기타 3명(2.9%) 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유형은 직계가족 모두가 이민한 교민들이 52명(50.5%)로 가장 많았으며, 노후를 보낼 예정국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필리핀이 39명(37.1%)으로 한국47명(44.8%),기타16명(15.7%)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희망 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함께 살고 싶다’가 13명(12.4%), ‘단독으로 살고 싶다’가 55명(52.4%),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37명(44.3%)로 단독으로 살기를 많이 희망하였다. 이상적인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40대 부터가 37명(5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30대, 50대부터는27명(24.8%)으로 동일하였으며, 60대부터는 9명(2.9%) 20대부터는4명(3.8%),60대 부터는 4명(3.5%)이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도 3명(2.9%)이 있었다. 노후 주 수입원은 퇴직금 및 연금이 52명(50.5%), 취업, 자영업 수입이 21명(20.4%), 주식 및 각종저축이 16명(15.2%), 임대소득이 12명(11.7%), 자녀도움이 2명(1.9%)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105)

항목	하위항목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자	61	58.1
	여자	44	41.9
이민생활기간	5년미만	45	43.3
	5이상~10년미만	35	33.7
	10년이상~15년미만	16	15.4
	15년이상~20년미만	6	5.8
	20년이상~25년미만	2	1.9
주택유형	개인소유	13	12.9
	임대	85	84.2
	기타	3	3.0
가족생활유형	직계가족모두이민	52	49.5
	일부만이민	36	34.3
	독신	11	10.5
	기타	4	3.8
노후예정국가	필리핀	39	38.2
	한국	48	47.1
	제3국	15	14.7
노후에 결혼한 자녀와 동거희망	함께	13	12.5
	단독	55	52.4
	차후고민	37	44.3
이상적인 노후준비 시작시기	20대부터	4	3.8
	30대부터	26	24.8
	40대부터	37	35.2
	50대부터	26	24.8
	60대부터	9	8.6
	필요없음	3	2.9
노후 주 수입원	취업, 자영업수입	52	49.5
	퇴직금 및 연금	21	20.0
	주식 및 각종저축	16	15.2
	임대소득	12	11.4
	자녀도움	2	1.9

2. 노후준비 실태

1) 경제적 노후준비

필리핀 교민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평균이 M=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평가한 것임을 고려해볼 때, 필리핀 교민들은 스스로 중간정도 수준의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 분석을 해본 결과, 1번~3번 문항과 같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M=2.05~2.56로 중간 이하 수준을 나타내,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실천적 행동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진다.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문항은 M=3.52 수준의 9번 문항(‘노후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노력한다.’)로, 노후에 편안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

이 경제적 노후 준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도 M=3.48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N	M	SD
경제적 준비 내용	1. 노후대책을 위해 사보험을 들었다.	105	2.56	1.351
	2.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 외에 매달 저축을 한다.	104	2.42	1.275
	3.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102	2.05	1.214
	4.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절약하며 생활한다.	105	3.22	1.160
	5. 노후의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기른다.	105	3.20	1.164
	6. 노후의 생활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105	3.18	1.116
	7. 노후에 살 주택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105	3.14	1.236
	8. 아플 때는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5	3.48	.991
	9. 노후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도록 노력한다.	103	3.52	.958
	합계	105	2.97	.752

2) 신체적 노후준비

필리핀 교민들의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는 전체평균이 M=3.32로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2번 문항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다.’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M=3.07~3.46 범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 등을 활용한 특별한 건강관리 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을 활용하여 신체적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신체적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N	M	SD
신체적 준비 내용	1.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105	3.13	1.001
	2.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다.	105	2.90	1.097
	3. 성인병에 대한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한다.	103	3.28	1.033
	4. 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105	3.17	1.004
	5. 노후의 건강 준비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105	3.07	.963
	6.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105	3.28	.849
	7.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105	3.35	.930
	8. 피곤하면 곧 휴식을 취한다.	105	3.45	.877
	합계	105	3.32	.773

3) 정서적 노후준비

필리핀 교민들의 정서적 노후준비 정도 역시 전체평균이 M=3.32로 중간 수준 이상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문항은 M=2.93의 5번 문항인 ‘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이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문항은 M=3.67의 5번 문항인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로 나타났다. 필리핀 교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노후 준비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적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N	M	SD
정서적 준비 상태	1. 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3	3.63	.863
	2. 사후에 천당이나 극락 같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104	3.38	1.339
	3.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104	3.54	1.105
	4.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104	3.48	1.005
	5.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103	3.67	.797
	6.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다.	104	3.62	.804
	7.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늘 참여하고 있다.	102	3.26	.954
	8. 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104	3.08	1.012
	9.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두려고 노력한다.	103	3.20	1.004
	10. 노후의 취미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103	3.36	.906
	합계	105	3.32	.668

4) 노후생활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필리핀 교민들의 노후생활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용돈과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양, 건강과 요양을 포함하는 신체적 부양 그리고 소외감과 고독감 위안을 포함하는 정서적 부양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전적으로 본인에 대한 책임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책임에 있다고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본인, 정부, 가족(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하였다.

표 5. 노후생활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항목	하위항목	인원수	백분율(%)
경제적 부양 (용돈, 생활비)	본인	44	44.0
	본인과 배우자	31	31.0
	가족(자녀)	2	2.0
	정부	2	2.0
	정부와가족(자녀)	2	2.0
	본인,정부,가족(자녀)	19	19.0
신체적 부양 (건강, 요양)	본인	30	30.3
	본인과 배우자	29	29.3
	가족(자녀)	3	3.0
	정부	13	13.1
	정부와가족(자녀)	7	7.1
	본인,정부,가족(자녀)	17	17.2
정서적 부양 (소외감, 고독감)	본인	29	31.2
	본인과 배우자	24	25.8
	가족(자녀)	11	11.8
	정부	7	7.5
	정부와가족(자녀)	8	8.6
	본인,정부,가족(자녀)	14	15.1

5)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필리핀 교민들의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공적 노후의 하위변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노후준비 관련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예측변인들 각각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자율적 삶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가 통계적 수준 $p < .05$ 에서 유의하게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량의 약 52.0%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성공적 노후의 하위변인인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만족, 타인수용, 자기수용 각각을 종속변인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은 정서적 준비였으며, 그 설명변량은 각각 20.0%, 43.6%, 37.5%, 7.3%, 30.8%, 48.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 전체에 대해서는 정서적 준비가 통계적 수준 $p < .01$ 에서 유의하게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량의 약 48.4%를 설명해주는 예언변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후에는 정서적 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노후준비 측정치의 설명력

종속 변인	예언변인	B	SE	β	t	R ²	adjusted R ²	F
자율적 삶	경제적준비	.159	.058	.209	2.732**	.732	.520	38.251**
	신체적준비	.064	.061	.087	1.044			
	정서적준비	.496	.068	.578	7.246**			
자기 완성 지향	경제적준비	-.106	.127	-.084	-.840	.447	.200	8.308**
	신체적준비	.221	.133	.180	1.658			
적극적 참여	경제적준비	-.024	.079	-.026	-.309	.673	.436	27.540
	신체적준비	-.007	.083	-.008	-.087			
자녀 만족	경제적준비	.734	.093	.689	7.910**	.627	.375	21.425**
	신체적준비	.141	.078	.158	1.805			
	정서적준비	.519	.091	.519	5.678**			
자기 수용	경제적준비	.104	.232	.048	.449	.317	.073	3.720*
	신체적준비	.028	.244	.013	.114			
	정서적준비	.713	.273	.290	2.614*			
타인 수용	경제적준비	.034	.085	.037	.406	.573	.308	16.270**
	신체적준비	.163	.089	.183	.183			
	정서적준비	.458	.099	.099	.442**			
전체	경제적준비	.051	.065	.062	.782	.706	.484	33.184**
	신체적준비	.087	.068	.109	1.266			
	정서적준비	.572	.076	.619	7.479**			

* $p < .05$, **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필리핀 한인교민중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65년생-1963년생을 중심으로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마닐라에 거주하는 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인 베이비부머는 한국의 IMF시대를 전후하여 경제적 문제로 이주한 세대와 최근 자녀교육의 문제로 이주한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민시기도 10년 미만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전체가 모두 이민이 49.5%로 노후 생활을 한국에서 보낼 것 이라는 응답이 47.1%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응답은 필리핀의 이민의 특징으로 보이며 노후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서 52.4%가 단독으로 생활하겠다고 응답으로 김양이,이체우(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노후준비시기로 강유진(2005)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40대부터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취업 및 자영업이 높게 나타나 필리핀 베이비부머의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필리핀 교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

적 노후 준비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이 전체평균이 $M=2.97$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는 전체평균이 $M=3.32$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들이 이민기간이 짧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되며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자 한 사람들의 이민 유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해 행복 할 것이다 는 긍정적인 응답이 평균치 보다 높게 3.63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미래보다 현재를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용돈과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양, 건강과 요양을 포함한 신체적 부양, 소외감과 고독감 위안을 포함하는 정서적 부양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전적으로 본인, 혹은 본인과 배우자의 책임에 있다고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 보장정책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 했듯이 신체적, 정서적 노후 준비에 높은 응답을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공적 노후에는 정서적 준비가 경제적, 신체적 준비에 비해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백지은(2005)의 연구에서 한국 중, 장년층은 신체적 준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는 평소 타국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교민들의 이민기간이 다른 교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의 근거지로 필리핀의 선택보다 한국을 선호함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리핀의 이민은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 아닌 생활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함이다. 따라서 필리핀 교민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해외 이민자 수는 2011년 현재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43].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개인에게 중요하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 한국 정부는 국내노인 복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 안전망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외 교민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해외교민의 참정권부여를 통한 자국민보호와 주권 참여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 대책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노후 실태의 조사를 통해 해외 교민들의 노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자인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들의 복지정책 중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에서 나타났듯이 의료적 보장에 대해 복지적 접근이 시급하게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필리핀교민들의 정서적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적 접근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현지 교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의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교민을 위해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베이비부머 교민의 노후준비를 연구하기 위해 일반화된 유형으로 필리핀 마닐라 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기에 필리핀 교민전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제한점을 가진다. 필리핀 교민 전체의 이민 유형과 생활실태, 노후 준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유진, “한국 성인 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2] 김경은, “청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과 유형”,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pp.185-208, 2011.
- [3] 김남순,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4]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1호, pp.211-231, 2008.
- [5] 김동엽,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

- 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7권, pp.233-267, 2009.
- [6] 김미혜, 신경립,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35-52, 2005.
- [7] 김범중, 이홍직, “미국 이주 한인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pp.145-168, 2011.
- [8] 김백수, 이정화,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3호, pp.411-425, 2010.
- [9] 김양이, 이채우,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9권, pp.55-82, 2008.
- [10] 권현주, 黒木保博, “동아시아 고령자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248-249, 2008.
- [11] 노길희,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권, pp.159-189, 2012.
- [12] 박우서, 조문석,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 및 이용수준에 관한 연구: LA 지역 한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제41권, 제2호, pp.15-39, 2010.
- [13]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학, 제58권, pp.281-302, 2012.
- [14] 박현식, 이선형, 최은희,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5권, pp.285-315, 2010.
- [15] 박현식, 최옥자, “독일 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복지학, 제43권, pp.467-487, 2012.
- [16]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17] 방하남,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 개발 연구, 베이비부머의 특징 및 현황,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2010.
- [1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실태조사, 2010.
- [19] 배문조,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1호, pp.45-61, 2011.
- [20] 백은영,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 pp.357-383, 2011.
- [21] 백지은, 한국노인들의 성공적노화에 대한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2] 성혜영, 조희선, “Rowe와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제26권, 제1호, pp.105-123, 2006.
- [23] 손신, 이정미, 류철원, “뉴욕시 거주 한인 노년층 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과정상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79-107, 2007.
- [24] 안정신, 강인, 김윤정, “한국중노년성인들의성공적노화척도개발에관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30호, pp.225-245, 2009.
- [25] 안정숙, 초기성인과 중기성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6] 안준희, “한인 이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7권, 제3호, pp.597-616, 2007.
- [27] 이병찬,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미친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8] 이신영, “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총론, 제28권, 제1호, pp.205-224, 2009.
- [29] 이준우, 이현아, 황준호,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711-732, 2011.
- [30]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 학회지, 제20권, pp.275-289, 2000.
- [31] 이현지, “재미한인 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의 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3권, pp.263-286, 2011.
- [32]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pp.245-262, 2012.
- [33] 윤석명, 방하남, 김지경, 황수경, 손유미, 장석인, 최환용, *베이비부머은퇴대비 정책발전연구. 경제인문, 사회연구원 휴먼뉴딜종합연구총서*, 2011.
- [34] 윤현숙, 유희정, “성공적 노화 여부에 따른 중요 생애사건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제27권, 제4호, pp.807-827, 2007.
- [35] 전해성, “노후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모색”, OUGHTOPIA, 제24권, 제1호, pp.267-293, 2009.
- [36]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레포트, 2011.
- [37] 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박준, 손민중, 이찬영, 이은미, 이민훈, 박변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2011.
- [38] 조문기, “제일코리아 고령자의 사회 보장에 관한 연구 : 민생(방면)위원회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51권, pp.353-372, 2011.
- [39] 조지현, 오세근, 양철호,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비교연구 : 한국·일본·중국·대만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22권, pp.7-42, 2011.
- [40]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제43권, pp.135-156, 2009.
- [41] 최인영, *한국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7.
- [42] 최영준, “베이비부머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탐색”, 경제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pp.123-145, 2012.
- [43] 통계청, *통계청인구총조사결과*, 2011.
- [44]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2.
- [45] J. E. Birren, *The Psychology of ag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 [46] P. B. Baltes and M. M. Balte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47] B. Lemon, V. Bengston, and J. Peterson,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In C. Kart & B. Manard (Compilers), *Aging in America: Readings in social gerontology* Sherman Oaks, CA: Alfred, pp.15-38, 1981.
- [48] R. L. Kahn, *Successful Aging: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a Concept*, In L. Poon S. Gueldner, and B. Sprouse (Eds), *Successful Aging and Adaptation with Chronic Diseas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2003.
- [49]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pp.443-440, 1997.
- [50] C. D. Ryff,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12, pp.34-55, 1989.
- [51] S. Torres, “A Preliminary test of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frame 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Vol.18, pp.79-100, 2003.
- [52]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9>
- [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78>

저자소개

박 현 식(Hyun-Sik Park)

정회원



- 1999년 8월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 Ham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invited Professor)

- 200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문화